

냉전기 베트남의 외교정책 (1976-1990)

Vietnam's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1976-1990)

송지예

이 연구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베트남 외교정책의 변화를 베트남공산당 지도부의 시각에서 살핀다. 통일 이후 베트남은 대내적으로는 남·북의 정치, 경제적 통합과 전시 경제로부터 평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국교회복 및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외교관계 수립과 외국자본 유치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중소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산권 내에서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베트남의 대외정책이 일관적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여, 시기별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을 대내외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차적으로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도부의 국제정치 인식을 살핀다. 통일 이후 1991년 전까지 베트남은 총 세 차례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1977년의 제4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비롯하여, 1982년에 제5차, 1987년에 제6차 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전당대회 보고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의 시각이 외교정책과 5개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전당대회 보고서에 등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 사회주의적 국제분업(socialist division of labor), 사회주의적 산업화(socialist industrialization)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해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떠한 대내외 정책으로 발현되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2차 문헌을 검토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검토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냉전기 베트남의 외교정책을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베트남 지도부의 인식이 어떠했으며, 그에 기반하여 어떠한 대내외 정책이 도출되었는지 이해하는 데에 있다. 베트남이 경험하고 있었던 국제정치 현실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베트남공산당 지도부가 갖고 있었던 내적 논리를 추적한다.

송지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19세기 베트남과 조선의 식민화 과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비서구 국제정치이론, 식민지 주권개념이다.

Date & Time: April 16,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